

4m 以上으로 推定된다. 머리는 약간 숙이고 素髮의 頭頂에는 큰 직한 肉髻가 있고 白毫는 없다. 兩耳는 肩에 까지 길게 늘어졌으며 兩眉眼과 鼻, 口部는 破損되었으나 口唇에는 微笑가 어리어 相好가 溫柔하며 慈悲가 넘친다. 通肩한 法衣는 胸前에서 U字形을 그렸고 兩腕을 걸쳐 앞으로 늘어졌는데 衣褶의 線이 굵다. 手印은 前面에 破損이 極甚하여 分明치 않으나 衣端으로 보아 右手는 胸前에 들어 施無畏印을 한 것으로 推定된다. 左側後頭部(向左)와 頭光左便一部가 破損되었으나 右側이 完全하여 곧 寶珠形頭光임을 알 수 있는데 그 中心에는 머리周圍로 蓮瓣을 彫刻하였다. 右外 頭光部는 內曲되고 太輪으로 內外二區한 痕跡이 보이며 周緣에는 火焰紋이 어렴풋하다. 外廓에는 化佛을 彫刻하였는데 頂上에 一軀를 配置하여 現在는 四軀뿐이나 元來는 都合七軀의 化佛이 있었음을 推定할 수 있다. 各化佛은 同一한 手法으로서 蓮花座에 結跏趺坐하고 合掌하여 寶珠形頭光을 가졌는데 特히 右側(向右)下部의 化佛頭光에는 二輪으로 三區한 것이 보이고 그外 化佛間地에 火焰紋이 注目된다.

이 佛像은 東向으로 自然岩層을 깊이 約二cm로 파서 다듬고 만든 龕室에 奉安되었으니 이러한 龕室意匠의 類例는 「慶州南山佛谷石佛坐像」이나 「瑞山泰安의 磨崖三尊佛」①에서도 볼 수 있다.

以上 本坐像은 造像形式이나 衣紋, 其他細部の 彫刻手法으로 보아 現地에서 가까운 榮州郡內에 所在하는 「可興里 磨崖三尊」 및 「石浦里 四面佛石」②과 恰似하다 할 것이다. 三尊의 形式은 아니라 할지라도 彫法이 古態하여 같은 系譜에 屬한다 할 것이다. 本坐像의 溫美한 相好라든가 衣紋 및 頭光의 形式과 化佛의 手法으로 보아 造成年代는 七世紀後半으로 推定된다.

現在 水月庵에는 老婆一名이 居住할 뿐이 遺像에 對한 保存施策이 全히 講究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 埋沒된 膝下部의 發掘과 再調査를 期待하는 바이다.

이 곳에 가는 코스는 榮岩線으로 奉化驛에서 下車, 物野面行 街路로 約八km(每日一回의 物野行)이스가 運行 徒步로는 一時間半 實測値는

◎現坐高 三四五cm, 膝幅 三〇三cm, 肩幅 一九〇cm, 胸幅 一一〇cm, 頭部 高一四七cm, 相好幅 七三cm, 耳長 八五cm, ◎頭光高一二五五cm? ◎頭光 化佛高六三cm, 幅 二九〇cm, 頭光高一七cm, 膝幅 四六cm, ◎岩壁化佛高 一四五cm 坐像高八八cm 頭光高六三cm 幅一〇〇cm 膝幅 七五cm 幅七〇cm

註

- ① 黃壽永·「忠南泰安의 磨崖三尊佛像」(歷史學報一七·一八合輯一九六二年六月)參照
- ② 秦弘燮·「榮州石浦里 四面佛石」參照(本誌一의 一一九六〇年八月)

### 南原郡 大山面 石造如來立像

申 榮 勳

實相寺를 爲始하여 萬福寺址·龍潭寺址等 統一期羅代의 遺物이 南原郡一帶에 散在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나 아직 調査되지 못한 것이 相當數 遺存하고 있다. 大山面 石造如來坐像도 그 中의 하나이며 其外 周生面에도 立像이 二軀 調査되지 않은 채로 있다. 아직은 踏査하지 못한 곳에서 몇 軀의 佛像이 遺存하고 있다는 情報도 있어 앞으로 地域의 活潑한 調査가 期待된다.

- 同坐像은 總高三·四〇m·光背幅 三·m·像高一·九四m 膝幅 二·二四m의 크 기이며 巨岩을 利用 하여 半肉彫하였고 光背만은 岩面을 그대로 利用하였다.
- 像의 寶髮은 素髮



이며 肉髻가 높직하고 顔面은 重厚端雅하나 比較的 넓직한 便이다. 硬直한 頸아래에 一段이 隆起된 部分이 있어 三道를 擬態하였다. 그로부터 가슴과 어깨의 線이 始作되는데 胸位는 大端히 發達된 當當한 것으로 自身이 滿滿한 體軀이다.

法衣는 左肩偏袒인데 上衣의 右端이 한결절혀져 있다.

印相은 一般的이 아닌 것으로 左手는 무릎위에 上掌하였고 (像中心線에서 훨씬 앞으로 나가 놓였다) 右手는 胸臆에 놓였는데 內掌하고 손끝을 위로 치켰다. 人指의 曲線이 興味있고 中間二指를 捻하고 새끼손가락을 폈다. 이러한 印相은 居昌地方의 石造佛像 등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大端히 興味있다.

光背는 學身光背로 頭光과 身光이 火焰內에 새겨져 있고 그 外廓에 連珠文을 둘렀다. 頭光은 連珠文帶內에 二條太輪이 둘러져 있고 그 內에 薄浮彫한 單葉蓮瓣이 十一瓣으로 되어 있다. 外廓間地의 火焰文은 形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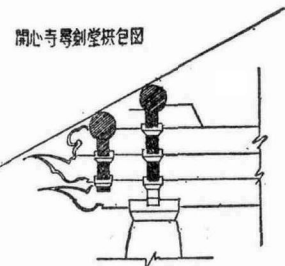
膝下의 臺座는 岩盤을 그대로 利用한 素朴한 것이다. 狀態는 매우 좋은 편이다. 新羅統一期作品으로 推定된다.

資料

瑞山 開心寺 尋劍堂 上樑文

林 泉

白紙墨書(長一m四cm 幅二七cm 字徑二cm)로서 四十一行인바 처음의 四行을 除하고는 關係人名의 列記이다. 一九六二年 九月二十日頃 開心寺 大雄殿 重修工事に 따라서 그 西側인 尋劍堂修理中 棟梁장처 間에서 發見되었다. 尋劍堂은 正面三間 側面二間으로서 二翼工의 外目柱三包樣式이며 背屋(맞배)인데 그 年代는 李朝初期(이웃 大雄殿과 거의 同代)



로 推定되었다. 이 같은 講堂樣式의 遺構는 麗代以來의 手法을 계승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 외의 安東 鳳停寺 講堂 또는 榮州 浮石寺 擬香閣(爐殿) 등과 比較考察되어야 할 것이다.

自成化十三年丁酉三重創 又天啓七年丁卯十月四重 創順治四年丁亥五重 創雍正九年辛亥四月十七日午時上樑六重創 大施主通政大夫申正元兩主 申尙元 嘉善

大夫比丘 覺明 通政大夫比丘 清演 金從鶴 金芑波只 尹宰億 申光雷 申寬興 朴尙明 通政大夫比丘 玄益 嘉善大夫比丘 尙玄 通政大夫比丘 靈彥 老德通政大夫釋誥 比丘學禪 比丘廣日 比丘道俊 三綱秩 和尚嘉善大夫處明 三寶云俊 持事云擇 書記戒均 持殿道行 緣化秩 木手 朴時同 比丘雪俊 金大奉 別座比丘聖仁 比丘九還 供義主漢益 智日 木軍 李世輝 李順必 化主 道禪 居士 惠日 比丘仁贊 (幅一m四·五cm, 高二七cm, 四一行字大二cm)

雙峰寺 大雄殿 上樑文(三層殿)

申 榮 勳

長一·六七m 幅二二·二cm 壯紙、無野線、墨楷書 全一〇二行

三層殿記 如建不知幾千年 康熙貳拾玖年庚午三日二重創召、焉 雍正貳年三月日三重創記 施主秩(上行) 大施主大禪師下荆 施主金者斤老味 施主嘉善廣海 施主前判事靈照 施主通政釋還 施主通政大安 施主通政登階竺念 施主慈解 施主處和 施主熙性 施主嘉善竺璉 施主嘉善明現 施主敏玉 施主通政登階敏熏 施